"자신감 넘치는 배우들 훌륭하다"

뮤지컬 '생명탑고' 연습현장에 총무원장 자승스님 방문 '격려'

도반으로, 때로는 '경쟁자'로 한 시대를 이끌면서 전한 우정을 나눈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생명탑고'가 오는 11일 첫 관객을 맞도고, 마지막 무대를 앞둬 하고 있는 연습현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 어린이종, 구불구불한 골목길 끝에 자리잡은 다소 비좁고 소박한 연습실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뮤지컬 배우들의 연습현장을 찾았다.

뮤지컬 제작을 주도해온 불교반송은 이사장 원당스님은 20여분 일찍 도착해서 이날 선보일 리허설 무대를 점검하고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수행단 스님들을 안내했다. 그 1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무대에 오르게 될 뮤지컬 생명탑고는 불교반송과 함께 대한불교조계종의 공동주최로 제작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원당스님 등은 연습실 한쪽에 마련된 임시 관람석에서 이날 배우들이 선보인 시연장면을 꼼꼼하게 살펴면서 지켜봤고, 중간중간 좋은 날을 앞어 함께 관람하려 오셨다. 보도드리게를 하여서는 뮤지컬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뮤지컬 '생명탑고'은 국내 내로라하는 연출과 안무, 음악감독이 참여 했는 대작으로 제작 단계부터 뮤지컬계에서 관심과 기대를 은원에 받아왔다. 뮤지컬 "도선선지 와 "원당" "의상과 연기" 등 화고의 흥행기록을 세운 작품들의 안무를 맡은 이한영 씨가 이번 뮤지컬에서 안무는 물론 첫 연출감독을 도맡았고, 지난 2011년 대표지휘이워

총무원장 자승스님(가운데)은 지난 3일 조계종과 불교반송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뮤지컬 '생명탑고' 연습현장을 방문, 시연을 관람하는 배우들의 기념촬영을 했다. 김형주 기자

선생님(뮤지컬 '도자선드' '뮈잉' 의 이한영 씨)을 맡 았던 것 같다"고 말해 배우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끝으로 "뮤지컬 '원효' 보다 내용도 쉽게 전달되고 배우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도 정말 훌륭했다"며 "조계종 총무원장과 좋은 날을 앞어 함께 관람하려 오셨다. 보도드리게를 하여서는 뮤지컬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뮤지컬 '생명탑고'은 국내 내로라하는 연출과 안무, 음악감독이 참여 했는 대작으로 제작 단계부터 뮤지컬계에서 관심과 기대를 은원에 받아왔다. 뮤지컬 "도선선지 와 "원당" "의상과 연기" 등 화고의 흥행기록을 세운 작품들의 안무를 맡은 이한영 씨가 이번 뮤지컬에서 안무는 물론 첫 연출감독을 도맡았고, 지난 2011년 대표지휘이워

즈에서 작사·작곡상을 받은 유명작곡가 장소영 씨가 작점 곡을 했다. 뮤지컬 "미남이사네요" "괴리의 연인" 을 은 이희준 작가가 작품을 썼고 오랫동에와 구윤영 씨 가 각각 무대와 조명의 디자인을 맡았다.

유명세보다 실력을 인정받은 배우들도 눈길을 끈다. 배우 김대명 씨, 박광 씨 등이 원효스님을, 배우 김호영 씨, 김슬백 씨 등이 의상스님의 역을 맡 소화했다.

공연일정은 서울을 시작으로 10월이일부터 7일까지 부산 롯데아트홀, 10월20일부터 21일까지 대구 한국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 오는 11월7일 중국 선전의 보리극장에서도 무대에 올라 중국인들에게 한중불교사의 진면목을 보여주게 된다.

하원은 기자 forsat@buligo.com

임회 선임 현진스님 "수락한적 없다"

백양사 대책위 "임회 자체가 불법모임"

고불총림 백양사 수호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열린 임회의 결과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난 3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3일 임회에 참석한 총 위원 수가 20명이라고 했으나 전체 위원은 27명이며 12명이 모이 과반에 미달되는 것으로 회의 성립 자체가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지 추천 권한이 없는 임원에서 현진스님을 차기 주지로 추천한 것은 논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백양사는 같은 날 오후 방장 스님을 비롯해 규약상 위원 선출을 제외한 위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회를 개최했으나 이날 사흘 후인 지난 6일 "임회는 불법모임"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주지 추천 권한이 없는 임원에서 현진스님을 차기 주지로 추천한 것은 논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백양사는 같은 날 오후 방장 스님을 비롯해 규약상 위원 선출을 제외한 위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회를 개최했으나 이날 사흘 후인 지난 6일 "임회는 불법모임"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재 수가공동체 세스님위원들의 구성해 승가청규, 종무세칙, 선거세칙, 복지세칙 등 주요 의제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공 국민의 지탄과 비판을 받은 종지의 굴욕 앞에서도 세스님의 이행한 분보"라고 지적했다.

또 "총무원장은 모든 임을 동원해 현재 승가공동체 세스님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반 주요의제를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이현경 기자 esmall@buligo.com

"쇄신개혁 지체없이 추진하라"

선원수좌회, 1일 성명서 발표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무여스님, 지환스님)가 쇄새임인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쇄신과제의 추격력인 성명을 촉구했다.

지난 8월29일 제8교구본사 지지사 만불전에서 대표자회의를 진행한 선원수좌회는 "출가수행자이며 조계종도의 사문으로서 미증유의 도박사건으로 촉발된 조계종단의 개혁과 쇄신을 염려하며 닮리는 말에 애학을 손꼬리고자 한다"며 성명서를 통해 "지체없는 쇄신을 촉구" 했다.

승가대교육지표 성명서 논란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단내 전파전개인 전국 승가대학 교육지향의 명의로 지난 4일 성명서가 발표된 후 교육원은 교육지도부 지원의 명의로 "교육원은 성명서를 발표한 적 없다"고 "그 과정에서 승가대학 교직자 스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해 발표된 성명서는 대표성도 없고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원에 따르면, 종감, 수덕사, 범어사 등 12곳의 승가대 학장과 학감 등 교직자 스님들이 성명서와 관련해 여러 연락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교직자원의의 일동이 아닌, 교직자원의의 재결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시간사 소임을 맡은 해인사승가대학장 해월스님이 발표한 것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승가대학 교직자원의 교직자 지난 2008년 회장 사임 후 임무실한 상태 대표성이 없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몇몇 승가대학장 스님들이 지난 6월16일 제8교구본사 동화사에서 모여 교직자원의 회재결을 논의했지만, 지금까지 회장은 공석인 상태다.

교육부장 법인스님은 "학파들 가트치는 교수 스님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근혹스러운 상황"이라며 "향후 전상교의 과정 해결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발표된 교직자협의회 명의의 성명서에는 "수좌회 입장표명을 지지한다"며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반 주요 의제를 지체없이 정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현경 기자 esmall@buligo.com

종단위상 실추 방지 중앙징계위 '설치'

비리행위 교역직 종무원 직무정지 '가능'

종단의 기강 확립과 사회적 위상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징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일 한국불교여성회관에서 열린 전심에서 신임 중앙징계위원 스님들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지광스님과 함께 이상 당연직), 위촉직 위원인 선문스님(해인사주지 동화사 주지), 원명스님(고구려본사 관산사 주지), 성적스님 청목스님(이상 중앙종회의원), 종훈스님(보광사 주지), 보경스님(법원사 주지) 등 9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총무원장 스님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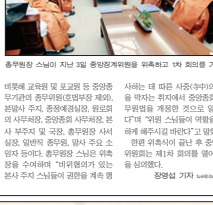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에 앞서 지난 8월28일 제41차 종무원의에서 '중앙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 을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이는 제19회 중앙종회에서 개정된 종무원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비리 종무원법은 교역직(스님)의 중앙징계위 위원 중앙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본말사 주지를 비롯해 비리 행위를 저지 교역직 종무원 스님을 이 직무를 추각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종법의 골자 가운데 하나다. 공직자 개인의 비위가 종단 전체의 위상 추락으로 이어지는 일을 조기에 차단하는는 취지다.

직무정지 처분대상은 종무원을 비롯해 교육원 및 포교원 등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위원(호법부장 제외), 본말사 주지, 종정예경실장, 원로의 사무처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본사 부주지 및 국장, 총무원장 사서실장, 상반적 종무원, 말사 주요 소임자 등이다. 총무원장은 스님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비위행위가 있는 본사 주지 스님들이 권한을 계속 행사하는 데 따른 사중(寺中)의 손실을 막자는 취지에서 중앙종회가 종무원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 스님들이 역할을 충실해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촉식이 끝난 후 중앙징계위원는 제1차 회의를 열어 사안을 심의했다.

장경심 기자 kum@buligo.com



총무원장 스님이 지난 3일 중앙징계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본·말사 주지연사
9월상고무무의

토요법회 '5돌' 을 봉축합니다.

동국대학교 법당
정각원 토요법회

5돌 기념 법회

● 일 시 : 불기2556년 9월 15일(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 장 소 : 정각원 법당
● 내 용 : 1부 기도법회, 축하공연
2부 법문(정각원장 법타스님)

동국대학교
정각원(Jeongkakwon)

월	일	강좌주제	강 · 법사	소속(직책)
2012	1(음7.15)	행복명상1	미가스님	(사)자비명상 대표
	8(음22)	행복명상2		
9	15(음29)	5돌 기념법회	정각원장	
	22(음8.7)	불교 리더십	인홍상 교수	동국대 경영전문대학 사회경영과장
	29(음14)	휴회(개인정진)		
10	6(음21)	사심미정1	미산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13(음28)	사심미정2		
	20(음9.4)	사심미정3		
	27(음13)	정각원 학술대회		
11	3(음20)	추계시낭송제	김정균 교수	동국대 예술대학
	10(음27)	불교와 신명	양정연	정승연(정화대위)
	17(음10.4)	불교와 사정철학	민희식 교수	전 한양대 교수
	24(음11)	불교와 사정철학2		
12	1(음18)	대각전 원불봉안 법회	정각원장	
	8(음25)	원각경 보안장	하주스님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15(음11.3)	원각경 보안장2		
	22(음10)	원각경 보안장3		
	29(음17)	송년법회	임동창	풍류 피아니스트

● 재학생(휴학, 대학원) 수요법회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 오후 7시
장소 : 정각원 법당
● 외국인 유학생 법회
중국어 _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18시
영 어 _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18시
● 정각원 불교합창단 (수시모집)
지휘 _ 허일범 교수 반주 _ 주영민
교수, 직원 제외상 일반신도 매주 금 12시 ~ 13시 / 매주 금 15시 / 토요법회 전후
● 오카리나 연주반 : 매주 목 14시
● 비교종교학 특강 : 매주 토 13시 30분
장사 _ 민희식 교수 (전 한양대 교수)
동국대 정각원 불교대학 (불교문화연구 11시)
● 시 간 : 매주 토요일 13시30분
● 대 상 : 불교입문과정 수료자
● 3기 개강 : 음력 2550기(3월 3일 성립
▣ 법회신청문의
주소_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Tel_ 02)2260-3814~8 Fax_ 02)2260-3744
홈페이지_ http://jeongkakwon.org/
정각원 페이스북 www.facebook.com/jeonggakwon
정각원 신도회_ 02)2260-3819 / http://cafe.naver.com/jgss